

전래동요 <별세기 노래>를 이용한 아동들의 구성활동*

김 규 도**

본 연구는 전래동요 <별세기 노래>를 이용한 구성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표현활동에 담아내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놀이가 학습으로 전환되는 것의 의미를 듀이의 경험론에 입각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학교음악교육에서 아동들이 구성활동을 통해 환경 혹은 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작품을 구성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그들의 음악적 감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교육의 방안을 모색한다.

구성활동은 음악적 경험에 대한 논의로 아동들의 내적(사고)과 외적(작품)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는 교육방법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동들이 외부의 소재를 구성함으로써 내부의 충동이나, 감각, 이미지, 사고 등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아동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다시 새롭게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전래동요, 구성활동, 음악표현, 교육실천학

차 례	
I. 머리말	1. 교재의 개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2.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3. 분석대상과 방법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4. 수업장면의 분석
II. 이론적 배경	IV. 분석결과와 결론
1. 구성활동에서의 놀이와 일	1. 분석결과
2. 구성활동의 원리와 구조	2. 결론
III. 연구수업의 분석	참고문헌

* 이 논문은 한국음악교육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시간강사(kgyudo@gmail.com)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학교음악교육은 서양적인 양식에 근거한 음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전래동요와 민요 등의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다행히 1992년 제6차 교육과정 이후, 1997년 제7차, 그리고 2007년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음악교육에서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났고 그에 따라 국악교육도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민요나 향토예능은 친숙한 음악어법과는 달라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전통음악 자체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문화(異文化)처럼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보육과 교육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민과 과제가 아닐까 한다. 국악교육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양적팽창과 함께 질적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동안 국악교육의 현황조사를 위해 유치중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음악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자에게 교육실천의 의도와 학교실정을 묻는 인터뷰조사를 하였다. 수업내용은 민요, 강강술래, 시조, 사물놀이, 종묘제례악, 대취타, 단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채 전통음악의 지식과 기능이 교사에서 아동에게로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았다.¹⁾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전통음악의 교육방식은 ‘시김새를 살려 민요 부르기’ ‘울음을 외워서 단소로 연주하기’ 등 음악의 기능적 측면 이외에도 ‘말붙임새 바꾸기’ ‘신체표현 만들기’ 등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보다 비중을 두어 전통음악이 아동 개개인의 음악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음악성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한다.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전통적인 음감각을 살린 교재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한 음악만들기, 창작을 이용한 표현활동, 감상과 표현을 통합한 포괄적 활동이 학교음악교육에서는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고지마 리쓰코(R. Kojima, 小島律子)는 일본 와라베우타(전래동요와 유사개념)

1)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제주 지역의 국공사립학교(유치원 포함) 40여 곳을 직접 방문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있다.

를 대상으로 언어, 신체, 음악의 세 가지 특성을 살려서 구성활동²⁾ (constructive activity)으로 조직하게 되면 교육활동 속에서 와라베우타가 놀이로서만 끝나는 염려는 사라진다고 하였다. 즉, 구성활동을 통해 와라베우타를 형성하는 언어, 신체, 음악을 이용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목적을 의식하면³⁾ ‘놀이(play)’가 ‘일(work)’로 전환되어, 유아기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재와 교육방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고지마, 2010, pp. 1-11).

듀이의 예술론에 근거한 이러한 구성활동은 학교음악교육 뿐만 아니라 유아음악교육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⁴⁾ 최근의 연구(요코야마, 2016, pp. 3-14)에서는 충동적인 놀이로부터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동료들에 대한 관찰과 모방 그리고 대화(의사소통)가 필요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실천학적 연구들은 작금의 우리나라 전통음악교육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들이 그들의 문화인 전래동요라는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도를 담아낼 수 있는 수업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학교 수업장면에서의 적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놀이를 일로 전환시키는 교육방법으로서, 구성활동에 근거한 음악만들기의 교육적 의의를 검토하고 학교음악교육에서 아이들이 음악적 감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본고에서는 전래동요를 이용한 음악학습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관찰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식을 따른다. 질적연구는 환경과 경험 그리고

2) 존 듀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아이들 문화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유형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유산을 자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지마의 구성활동은 이러한 듀이의 ‘occupation(직업, 업무, 일)’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듀이가 그의 저서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예술적 occupation을 다룬다.

3) 듀이에 의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활동을 의도적으로 살피면서 계획해서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것은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며, 그 생각에 비추어 사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교육』(1996, p. 162)을 참조.

4) 일본 간사이음악교육실천학회(關西音樂教育實踐學研究會)에서 2010, 2013, 2014에 간행된 『학교에서의 와라베우타 교육의 재창조』, 『악기만들기를 통한 상상력 교육』, 『생활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만들기』를 참고로 하였다.

상호작용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에 연구의 큰 의미를 부여 (최은식 외, 2014, p. 170)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중에서도 교육실천학의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교육실천학의 방법은 새로운 이론과 가설에 근거하여 전개하는 교육실천의 결과, 아동들의 변용이 종래의 수업사실에 의해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 아동과 비교하여 무엇이 우수한가를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기본(石田一彦, 2006, p. 19)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음악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구성활동을 통해 환경 혹은 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작품을 재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본고의 주제인 ‘구성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행연구는 보이지 않으나, 유사개념인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유아와 아동의 음악활동에 대해 논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지혜·김선영(2010)은 구성주의적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음악적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검증하였고, 신인숙(2005)은 구성주의 교육에 근거한 소집단 음악활동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하였다. 최은식(2003)은 구성주의적 중등음악교수모델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교수·학습안을 개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학습자 중심의 관점에서 대상을 조작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재구성하는 유형의 활동으로, 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한 음악활동에서는 음악을 보다 탐색적 혹은 자발적으로 경험하므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전인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나 보육현장에서의 아동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단위 수업시간에 교사의 어떤 발문에 의해 아동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명확화 되었으며, 아동들 간의 음악적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이 어떻게 구체화 됐는지, 아동의 음악적 경험이 언어활동을 통해 어떻게 피드백 되어 자신들의 표현행위를 의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전래동요는 예부터 내려오는 아이들의 노래를 말하며, 일반적인 민요에 속하는 노래 가운데 아이들이 주로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김혜정, 2007, p. 19). 이러한 전래동요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일찍이 아이들의 문화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배움을 통해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놀이터나 마당에서 누나, 형, 언니, 오빠나 또래와 함께 전래동요를 부르며 음감을 익혀 왔고, 지역의 축제나 전래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해해 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 땅에서 태어나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고유의 음악어법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놀이와 신체의 움직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유의 리듬감을 습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전래동요는 창자(唱者)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끊임없이 창작되면서 불려온 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창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래동요에는 언어, 신체, 음악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전술한대로, 전래동요가 놀이로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활동을 통해 그것을 이루는 언어, 신체, 음악을 이용해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목적을 의식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 인해 ‘놀이’가 ‘일’로 전환되며 학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1. 구성활동에서의 놀이와 일

그렇다면 ‘구성활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구성활동은 듀이(J. Dewey)의 작업(occupation)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용어이며, 작업은 신체 기관을 통해 나타나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놀이(play)를 일(work)과 학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듀이(1975)에 의하면, 작업은 “아동이 행하는 일종의 활동으로서, 사회생활에서 행해지는 어떤 형태의 작업을 재현하거나 또는 그것에 평행해서 행해지는 것을 지칭한다”(p. 157)고 한다. 작업은 본래 듀이가 세운 실험학교의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나온 용어이므로 목판과 도구를 사용하는 공작실 작업, 요리, 재봉, 직물작업 등을 가리킨다(p. 157). 하지만 작업에 대한 각종 흥미는 습관적이거나 맹목적이지 않은 아동의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동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놀이가 되고 때로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듀이(1975)에 의하면, 놀이는 “아동이 자기 자신의 심상이나 흥미를 어떤 만족할 만한 형식으로 구현함에 있어서의 아동의 전능적 전사상 육체적 운동의 자유로운 활동이며 상호 활동이다”(p. 139)고 하였다. 이에 비해 일은 “예견되는 결과가 비교적 명확하고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룩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 놀이는 일로 바뀐다. 놀이와 마찬가지로, 일은 유목적적인 활동이다”(듀이, 1996, p. 322)고 설명한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예견되는 결과,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어떤 활동의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 과정에는 아동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활동이 점점 복잡하게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달성될 특정 결과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하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다. 이리하여 활동은 놀이에서 점점 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요약하면, 놀이는 아동이 자신의 이미지나 흥미를 만족할 만한 형태로 구체화할 때에 자신의 능력, 사고력과 신체적 운동이 총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거기에 어떤 목적에 대한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사고를 의식화하게 하면 일(학습)로서 전환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은 놀이보다 결과를 얻기 위해 더 긴 과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모래밭에서 <두꺼비, 두꺼비>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모래집을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아이들은 내발적인 흥미를 가지고 모래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각자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두꺼비 집을 만든다. 가사 ‘물 길 어 오너라, 너희 집 지어 줄게’처럼 튼튼한 두꺼비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의 수분함유량도 고려하고, 모래의 경도도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만약 각자 만든 두꺼비 집을 연결해서 모래터널을 만들거나 거대한 두꺼비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활동이 이전보다 복잡해지게 되며 아이들은 목적과 수단을 보다 의식화하게 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거치면 아동들은 달성될 결과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놀이에서 일로 전환되는 것이고 비로소 학습의 요소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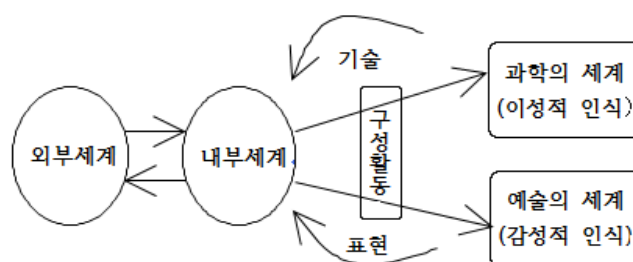
2. 구성활동의 원리와 구조

고지마(2010)는 구성활동이란, “충동·흥미를 기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이 외부의 소재를 구성함으로써, 내부의 충동이나, 감각, 이미지, 사고 등을 재구성하는 교육방법”(p. 22)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구성활동에서는 안팎의 상호작용에 충동이라는 표현의 동기가 되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이 요구된

다. 듀이가 말하는 충동(impulsion)이란 자극(impulse)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경험과 관련하여 충동은 표현과 관계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굴광성(屈光性)은 빛의 자극에 반응하는 식물의 습성으로 환경에 내포된 메커니즘의 일부이지만, 충동은 총체성 안에서의 유기적인 운동, 즉 모든 완성적 경험의 최초의 단계이자 동기가 된다(듀이, 2005, p. 122).

표현한다는 것은 발전하면서 진전해서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2005)는 본질적으로 충동이 표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방출이 조정되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p. 122). 다시 말해, 충동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만으로는 예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타악기가 놓여 있는 교실환경에서 교사가 소리탐색 활동을 지시하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두드리거나, 문지르거나 하면서 악기 소리에 몰두한다. 거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한 가지 선택하자”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지금까지 별생각 없이 악기 소리를 내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무언가를 억제하고 조절하면서 소재가 되는 악기와 소리라는 매체와의 관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표현은 어떤 매체를 통해 발생되며, 이때의 충동은 표현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처럼, 아이들은 구성활동을 통해 외부세계⁵⁾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을 언어나 기호로 기술하고, 혹은 음이나 색채나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음악과의 경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미지나 느낌을 소리나 움직임이라는 표현매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구성활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내부세계와 외부세계 그리고 표현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그림1] 구성활동의 원리와 구조 (『總合的な學習と音樂表現』, p. 46에서)

5) 고지마 외는 『總合的な學習と音樂表現(총합적 학습과 음악표현)』라는 저서에서(2000, p. 46) 외부세계란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자연)·사람·사물을 가리키고, 내부세계란 이미지나 사고나 직관 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아동들의 내면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다양한 타악기(무선율)가 놓여 있는 환경에서 아동들이 악기소리를 탐색하는 활동을 상상해 보자. 처음에는 자신들이 선택한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두드려보고, 문질러 보고, 긁어 본다. 그 와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나 선택해 친구들에게 소개하게 하면, ‘밤하늘의 별빛이 반짝이는 느낌’과 같은 이미지를 교류한다. 이것은 악기(외부세계)의 주법에 따라 음색의 변화와 이미지(내부세계)가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두 명씩 짝을 지어 문답 형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연주하도록 하면, ‘엄마와 밤길을 거닐며 밤하늘을 보는데, 별똥별이 떨어지고...’와 같이 이미지가 보다 확장된다. 당연히 이미지(내부세계)에 맞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 악기(외부세계) 연주의 속도나 강약 등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깥에 있는 소재의 형태를 재구성하면서 자기 안의 재료, 즉 이미지나 감정, 사고 등을 재구성해가는 일을 ‘구성활동’이라고 부른다. 그 본질은 자신의 안팎에 이르는 이중의 변화에 있다. 특히 이중의 변화에서는 내면의 변화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밀접하게 관련된다(고지마 외, 2013, p. 14)고 한다. [그림1]에서 ‘기술’과 ‘표현’이 다시 내부세계로 향하는 것은, 구성활동에서는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이성적 인식과 감성적 인식의 결과로 다시 내부세계를 변화시키는 피드백을 의미한다.

Ⅲ. 연구수업의 분석

1. 교재의 개관

[악보1]은 국립국악원 『국악교육안내서 3 전래동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⁶⁾에 수록되어 있는 <별 헤는 소리>이고, [악보2]는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채록한 <별 하나 따서>⁷⁾로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⁸⁾에 게재되어 있다. 까만 밤하늘

6) 국립국악원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출처를 참고하면, 1994년에 문화방송이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에 사는 정말순(여, 1928) 할머니로부터 채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정말순 할머니의 소리는 “별 하나 내 하나, 별 둘이 내 둘이...”라는 전래동요로 국립국악원의 정보와 다르며 [악보1]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7) <http://urisori.co.kr/dokuwiki-cd/doku.php> (2016년 9월 2일 열람), 경북1534-1/문경군 영순면 율곡리 당골/윤경임(여, 1918)의 소리로 1994년에 녹음되었다.

8) 위의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 사이트’에는 경상북도 ‘영일군’, ‘청송군’, ‘문경군’의 곡이

의 별을 쳐다보면서 제 나이까지 혹은 일정한 수를 정해 놓고 그 수까지 한숨에 헤아리면 오래 산다고 여기는 민간신앙에서 유래된 동요라 할 수 있다(국립국악원, 2002, p. 87). <별 하나 따서>의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 <별 헤는 소리>와도 큰 차이가 없다.

별 하나 따서 홀테망태 넣어서 계수남게 걸고,
별 둘 따서 홀테망태 넣어서 계수남게 걸고,
별 서이 따서 홀테망태 넣어서 계수남게 걸고,
별 너이 따서 홀테망태 넣어서 계수남게 걸고,
(중략)
별 아홉 따서 홀테망태 넣어서 계수남게 걸고,
별 열 따서 홀테망태 넣어서 계수남게 걸고.

소리: 미상, 채보: 국립국악원



[악보1] 경북 청송 지방의 <별 헤는 소리>

소리: 윤경임, 채보: 김규도



[악보2] 경북 문경 지방의 <별 하나 따서>

두 곡을 분석해보면 모두 3음 구성으로 ‘라’가 동음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가사는 거의 비슷하고 박자구조만 약간 다를 뿐이다. <별 헤는 소리>에서는 ‘걸로’의 음절을 각각 1박 (J)으로 길게 늘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 음절을 각각 반박(J) 씩으로 하면 2소박 4박의 두 장단 선율은 2소박 6박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다.

빠르게 주위섬기면서 부르면(앞의 책, p. 88), <빌 하나 따서>와 같다. 이하, <별 헤는 소리>와 <빌 하나 따서>의 두 곡을 동시에 지칭할 때는 편의상 <별세기 노래>로 한다.

별	하나	따	서	홀태	망태	넣어	서	계수	남계	걸	-	고	-	△	
별	하나	따	서	홀태	망태	넣어	서	계수	남계	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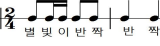
[악보3] <별 헤는 소리>와 <빌 하나 따서>의 박자구조

2.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연구수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전래동요 <별세기 노래>의 언어와 음악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업안을 작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내용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말리듬 오스티나토를 주로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제재곡 <별세기 노래>는 언어 유희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노래보다 말에 가깝고 고집스럽게 반복된다는 음악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에 제시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안에 불과하며 언어, 음악, 신체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 전래동요가 구성활동에 보다 적합함을 밝힌다.

음악과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일시	2016년 9월 20일, 23일 양일 4교시(12:20-13:00)		장 소	4학년 2반 교실 남14명, 여14명	
단 원	전래동요		수 업 자	김규도	
학습내용	리듬 오스티나토, 소리의 어울림		차 시	1-2 차시	
학습목표	<별세기 노래>에 어울리는 오스티나토 ⁹⁾ 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하여 연주해봅시다.		수업모형 및 수업형태	활동중심수업 모형 그룹별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 학습동기 유발하기 - 전래동요 <빌 하나 따서>를 들어본다.		10	PPT, 음원자료

9) ostinato, 어원적으로 고집스럽게 동일한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음악에서 동일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하는 반주의 형식 또는 리듬, 가락의 동일한 형태의 반복을 의미한다.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2007, p. 109)를 참조.

전개 활동1	발견 하기	○ 악곡의 특징을 찾으며 들어보기 - 할머니 목소리, 가사가 반복된다. - 가사 내용 파악하기(‘별’이란 경상도 사투리로 ‘별’, ‘망태’란 물건을 담는데 쓰는 농기구, ‘계수나무’는 냇가 등의 양지바른 곳에서 자라는 나무)	5	악보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노래를 들려주어 가사와 가락에 집중하도록 한다.
	경험 하기	○ 놀이하며 제재곡 익히기 - ‘한숨에 노래 부르기’, ‘자기 나이까지 헤아리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노래 부른다.		
활동2	분석 하기	○ <별 하나 따서>와 박자구조가 다른 <별 헤는 소리>를 듣고 차이점(느낌, 분위기)을 생각해본다. - <별 하나 따서>로 불렀을 때는 ‘하늘에 별이 참 많구나’라고만 느꼈는데, <별 헤는 소리>로 부르니 ‘별동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등. - 악보를 보고 박자구조(2소박 4박, 2소박 6박)가 다른 두 곡을 확인한다.	5	새로운 놀이방법을 고안하여 노래 부르면 보다 효과적이다.
	창작 하기	○ 리듬 오스티나토 연습하기 - 교사가 제시한 리듬 오스티나토(티티리티티타타)를 쳐 본다. - <별 헤는 소리>를 부르며 오스티나토를 연습한다.	10	
		 별빛이 반짝 반짝 라는 말리듬을 치는 모듬과 노래 부르는 모듬으로 나누어 제재곡을 연주한다.		
	발표 하기	○ 모듬별로 리듬 오스티나토와 말리듬 만들기 - <별 헤는 소리>의 오스티나토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하고, 말리듬을 붙여본다. ○ 모듬별로 만든 오스티나토를 노래에 맞추어 반주한다. - 다른 모듬의 연주를 평가해본다.	10	
활동3	소리 탐색 과 악기 선택	○ 학습 확인하기 - 지난 시간에 만든 오스티나토를 연주해 본다. ○ 소리탐색하기 - 교사가 준비한 악기(북, 소고, 장구,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핸드벨, 리듬스틱 등)를 자유롭게 두드리며 소리를 내본다. ○ 악기 선택하기 - 모듬에서 창작한 리듬 오스티나토와 잘 어울리는 악기를 한 가지 선택한다. - 소리탐색 후, 모듬원의 협의를 거쳐 악기를 결정한다.	10 5	교사는 사전에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악기를 구비해 놓는다.
	정리 재구 성하 기	○ 협연 모듬 정하기 - 다른 모듬의 오스티나토를 들어 보고, 우리 모듬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모듬을 정한다. - 그 이유를 설명하고 모듬간의 동의를 얻어 2개의 모듬을 합친다.	10	
	발표	○ 발표하기 - 제재곡, 오스티나토, 말리듬을 이용하여 <별 헤는	10	

		소리>를 연주한다. - 완성된 모듬의 발표를 들어 보고, 창작한 오스티나토와 말리듬에 대해서 느낌을 이야기한다. -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해 가며,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5	전주와 간주 등을 만들도록 격려한다.
--	--	--	---	----------------------

3. 분석대상과 방법

분석대상은 필자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직접 연구수업을 실시한 인천광역시 K초등학교 4학년의 음악과 수업이다. 여기서는 구성활동으로 인해 ‘놀이’가 ‘일 혹은 학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출 장면마다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제시하고 교사의 의도와 아동들의 발언, 반응,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아동들이 자신들의 충동이나 흥미를 기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외부에 주어진 어떤 소재를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수업분석의 관점은 ①‘아동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목적을 어떻게 의식화하고 있는가’ ②‘내부 세계와 외부세계 그리고 표현과의 상호작용이 있는가’로 설정하였다.

4. 수업장면의 분석

필자는 연구학교의 협조를 얻어 사전에 대상학급을 세 차례 방문하였고 담당교사와의 상의 하에 아동들의 음악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다. 여기서 수업장면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박자구조가 다른 두 곡을 비교하여 들어보기, 그리고 모듬별로 제재곡에 어울리는 2~3마디의 기본 오스티나토를 만들고 비평하기, 다음으로 소리탐색 후에 다른 모듬의 연주를 듣고 비평하기, 마지막으로 협연하기로 구성된다. 아래에 제시한 수업장면은 이러한 구성활동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과 각각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이에 각 단계를 분석관점에 의거하여 해석하여 본다.

(1) 【장면1】 <별 하나 따서>와 <별 헤는 소리>를 비교해 들어보기

두 곡의 느낌과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활동으로, 아동들에게 음악에 대한 적절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그것을 음악의 구성요소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아동들은 <별 하나 따서>라는 전래동요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본연의 놀이를 통해 충분히 경험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버전인 <별 헤는 소리>와 비교해 들으며 음악을 지각하고 느낌을 발표한다.

T: 지금 부른 곡 <A: 별 헤는 소리> 과 아까 부른 곡 <B: 별 하나 따서>의 느낌과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S1: A는 음이 없고, 조금 빨리 빨리 가사 대로만 말하니까...조금 지루한데, B는 어느 정도 리듬이 있고 높낮이도 있어서 A보다 재미있어요.
 S2: A는 빨리 불러서 조금 힘이 드는데, B는 A보다 부르기 편해서 좋아요.
 S3: A는 응원하는 것 같이 힘찬데, B는 자장가 같이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T: 여러분들, 두 곡의 느낌하고 분위기를 잘 발표해 봤는데, 왜 이렇게 두 곡이 다른지 준비한 악보로 확인해 봅시다.
 (두 곡의 오선보를 제시한다.)
 T: 악보를 보니까 “뭐가 다른 거 같아요”, 라는 거 말할 수 있어요?
 S4: <별 하나 따서>에는 쉼표가 없는데, <별 헤는 소리>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S5: <별 하나 따서>는 가사 ‘걸고’가 8분 음표(♪♪)인데 <별 헤는 소리>는 ‘걸고’가 4분 음표(♪)예요.

[시점①] 교사가 비교대상과 듣는 관점을 제시하자, 아동들은 놀이로서 전래동요를 학습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분석적으로 악곡을 파악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관점에서 ‘A는 응원하는 것 같이 힘찬데, B는 자장가 같이 차분한 느낌’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고, 이는 쉼표의 유무나 가사 ‘걸고’를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악보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아동들은 작품을 듣는 관점만이 명확해졌을 뿐 자신들의 표현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

[시점②] 아직은 아동들이 그들의 생각이나 의도를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물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 헤는 소리>에서 나타나는 느낌을 음악의 구성요소와 관련지어 파악함으로써 다음에 이어지는 아동들의 표현활동에 활용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가사가 재미있어요”, 리듬 ㉔는 “가사 내용은 좋은데 리듬이 <별 하나 따서>랑 똑같아서 아쉬워요” 등을 말하였다. 표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외부세계)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그들의 활동을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표현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리듬 ㉔(대머리 번쩍 번쩍)을 발표한 모듬은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웃기만 해서)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라는 평가가 나오자, 모듬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다른 걸로 하자” 등의 의견이 나와 금방이라도 수정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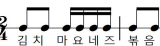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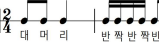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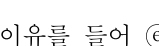
(3) 【장면3】 소리탐색 후 다른 모듬의 연주를 듣고 비평하기

교사는 북·소고·장구·풍물북 등의 국악기와, 마라카스·리듬스틱·귀로·트라이앵글 등의 리듬악기를 준비하고, 아동들에게 소리탐색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오스티나토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악기를 한 가지씩 고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마라카스(Maracas)를 선택한 모듬은 “오스티나토의 ‘반짝반짝’ 이미지와 악기 소리가 비슷해서”라고 하였고, 악기 귀로(Guiro)는 “오스티나토 ‘개구리 소년 뽀빠바’의 개구리 소리 같아서” 등 음색과 이미지의 연결을 생각하며 악기를 선택하였다. 이 활동의 목적은 아동들의 생각이나 의도가 표현활동에 잘 드러나게 함으로써 소리 매체를 재구성하는 활동과 결부시키기 위함이다. 아래는 각 모듬의 발표를 들은 후, 함께 연주하고 싶은 모듬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부분이다.

- | |
|--|
| 1모듬(소고): 저희가 선택한 모듬은 6모듬(장구)입니다. 왜냐하면, 노랫말이 장구와 어울리기도 하고, 또 장구소리가 크기 때문에 더 노래 소리가 잘 들릴 거 같기 때문입니다. |
| 6모듬(장구): 저희는 4모듬(풍물북)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구와 풍물북의 소리가 잘 맞을 거 같아서입니다. |
| 4모듬(풍물북): 저희는 5모듬(리듬스틱)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기와 가사가 함께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
| 5모듬(리듬스틱): 저희는 4모듬(풍물북)을 택했습니다. 함께하면 잘 맞을 거 같아서입니다. |
| 2모듬(귀로): 7모듬(마라카스)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귀로가 소리가 작아서 큰 소리가 나는 모듬이랑 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 3모듬(작은북): 저희는 6모듬(장구)이랑 하고 싶습니다. |

[시점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들은 음악을 구성하는 가사, 리듬, 음색, 음

량 등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듬의 악기를 선택하고 다른 모듬과의 협연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동들은 친구들의 의견을 참고로 이미지와 소리를 연결시켜 다시 한 번 표현방법을 구상하며, 악기를 이용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에 비추어 소리의 어울림을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듬의 반응을 통해 자신들의 표현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의식하게 되고 비로소 자신들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

[시점②] 아동들은 ‘반짝반짝’이나 ‘개구리 소리’ 등 자신들의 생각과 이미지를 악기라는 소재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여기서는 악기의 소리 내는 방법을 바꾸어 보거나 주법의 변화, 속도의 변화, 강약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모습이 엿보였다. 일부 모듬에서는 리듬 오스티나토 자체를 변화시켰다. 구체적으로 리듬 ㉠  을 제시한 모듬은 김치를 볶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북을 선택하였는데,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  라는 보다 복잡한 리듬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리듬 ㉢  을 선보인 모듬은 친구들로부터의 평가의 영향과 리듬 ㉣  의 말과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  이라는 새로운 오스티나토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이 구성활동에서는 끊임없이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물의 의미를 파악해 간다.

(4) 【장면4】 다른 모듬과 협연하기

다른 모듬과의 협연이라는 맥락에 놓인 아동들은 자기 모듬만이 연주할 때 보다 각 악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다른 오스티나토와 제재곡의 대비에 대해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은 발표라는 일종의 무대를 의식하게 되면서 연주의 시작과 끝을 새롭게 약속하기도 하였다.

[시점①] 협연하기 단계의 아동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활동 속에서 언어와 음악에 주의를 기울여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의식화하고 있다. 특히 다른 모듬의 소리에 어울리게 연주하기 위한 그들의 표현에는 템포와 셈여림에 변화가 나타나며, 놀이적 요소보다는 음악적 완성도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점②] 연주가 끝나면 각 연주에 대해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자유롭게 말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표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것은 전술한 대

로 아동 자신 안팎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표현을 재구성하게 한다.

예를 들어, 소고(㉔')와 장구(㉕)를 선택한 모듬의 연주는 “<별 하나 따서>의 박자와 자신들이 만든 오스티나토가 잘 어우러지고 잘 맞아서 좋았어요”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 풍물북(㉖)과 리듬스틱(㉗)의 연주에 대해서는 “○모듬의 말 리듬이 안 들려서 아쉬웠어요”, “북소리 때문에 리듬스틱 소리가 안 들려 아쉬웠어요”, “곡은 괜찮은데 박자가 뭔가 안 맞는 거 같았어요”라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귀로(㉘)와 마라카스(㉙)의 연주는 “노랫소리와 오스티나토가 잘 안 들렸고, 박자도 약간 엇갈려서 아쉬웠어요”, “8명이 하는 건데, ○○이 한 명의 목소리 밖에 안 들려서...” 등을 말하였다. 결국 다른 모듬에게서 받은 피드백은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에도 영향을 미쳐 이미지나 사고가 보다 명확해진다고 생각한다.

IV. 분석결과와 결론

1. 분석결과

본 연구는 학교음악교육에서 전래동요를 이용한 구성활동을 통해 놀이에서 학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아동 개개인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성 발달을 꾀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처음에 아이들이 <별세기 노래>에서 보이는 놀이는 제 나이까지 혹은 일정한 수를 정해 놓고 그 수까지 한숨에 헤아리는 방식이었다. 놀이로서의 <별세기 노래>는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므로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별칙을 결정하는 것으로 끝난다. 한편, 학습으로서의 <별세기 노래>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사고를 의식화 하므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놀이보다 긴 과정이 요구된다. 즉, 학습자가 각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현재의 반응을 조정하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서는 경험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며, 아동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학습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필자는 ①아동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목적을 어떻게 의식화하고 있는가? ②내부세계와 외부세계 그리고 표현과의 상호작용이 있는가? 라는 시점을 설정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한 교수·학습안을

바탕으로 수업을 실천하고 분석하였다.

【장면1】에서는 2소박 4박의 두 장단 선율의 <별 헤는 소리>와 2소박 6박의 <빌 하나 따서>를 분위기와 느낌, 음악의 구성요소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며 제재곡을 분석하였다. 아동들은 음악을 지각하고 느낌을 알아보는 활동에서 이미지나 목적을 의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현방식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것은 공감하였다.

【장면2】에서 아동들이 오스티나토를 창작하는 방식은 모방을 바탕으로 하였다. 기존곡을 약간 변화시킨 것들이 많았지만, 이것은 아동들이 충동이나 흥미를 기점으로 하는 표현활동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수업전반에 활용되었다.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창작한 말리듬에는 그들만의 리듬감이 나타났으며 오스티나토로 인해 제재곡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장면3】에서 아동들은 표현의 소재가 목소리에서 악기소리로 넓어지자 우선은 음색과 이미지의 연결에 주목하였다. 소리탐색을 통해 악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난 후에는 리듬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것은 일부 모듬이 오스티나토를 변화시켜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밖에 악기를 이용해 주법, 빠르기, 셈여림 등을 변화시켜 가며 표현요소와 자신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의식하고 있었다.

【장면4】는 협연하기와 그에 대한 비평을 하는 활동으로 표현욕구가 친구들과의 협연이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재구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은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악기라는 소재에 적용하여 표현하면서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감정이 나타났다. 이것은 나아가 음악의 의미를 공유하고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아동들은 음악적 표현행위를 의식하며 모듬간의 의사소통을 거쳐 음악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자신들의 기능과 관련 짓는 상호작용이 수반된다.

2. 결론

본고에서 다룬 구성활동은 음악적 경험에 대한 논의로 아동들의 내적(사고)과 외적(작품)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는 교육방법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동들이 외부의 소재를 구성함으로써 내부의 충동이나, 감각, 이미지, 사고 등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활동은 두이가 말하듯이 목적과 방향성이 동일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 보다 의미를 가진다. 연구 수업에서 제시한 ‘두 개의 악곡을 분석하기’, ‘자신들만의 오스티나토 만들기’, ‘소리탐색하기’, ‘협연하고 비평하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활동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보장되었다.

비록 학교음악교육이라고 하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나타난 음악활동이지만, 듀이가 교육을 ‘경험의 지속적인 재구성(re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동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다시 새롭게 구성해 가는 활동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교사는 활동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위수업 안에서 명확한 지도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음악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아무리 재미있고 아동의 흥미를 끄는 능동적인 활동이라도 그것이 학습목표와 무관해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목표를 가지고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표현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준비한다.

둘째, 수업의 도입부에서는 우선 아동들이 전래동요와 그에 수반된 놀이에 충분히 익숙해질 만큼 활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과 놀이는 내재적 동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의 여기저기에 놀이적 요소가 녹아 있으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활동의 목적이 놀이에서 음악학습으로 점차 변화됨에 따라 아동들의 의식도 ‘놀이를 통한 재미’에서 ‘음악적 요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셋째, 놀이에서 일(학습)로 전환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고 둘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래동요를 형성하는 언어적 리듬,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가변성, 그리고 신체적 움직임 등이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됨으로써 놀이가 학습으로 발전해간다. 보다 복잡해진 활동으로 인해 아동의 흥미가 놀이에서 음악, 움직임, 언어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구성활동을 통해 국악학습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신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경험을 재구성하게 되고, 국악을 이문화가 아닌 자신들의 문화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통음악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나 교육과정에 배열된 지식과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는 교육적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제재곡 <별세기 노래>는 언어 유희적 측면이 강한 전래동요이기 때문에 활동 속에서 아동들의 신체적 움직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였다. 앞으로 움직임을 수반한 전통적인 지도방법을 통해 유아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흥미로운 국악교재의 의의를 알아보고, 전통음악이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음악문화로 재창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Branscombe, N. A.(et al.)/강현석 역 외(2005). **구성주의 유아교육과정**.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국립국악원(2002). **국악교육안내서 3 전래동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서울: 저자.
- 김혜정(2007). **초등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민속원.
- _____(2015). **국악교육의 지향과 민요의 교육적 활용**. 서울: 민속원.
- 백지혜, 김선영(2010). 구성주의에 기초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창의성과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제14권 제6호**, 507-534.
- 석문주 외(2007).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신인숙(2005). 구성주의 유아교육과정에 근거한 소집단 음악활동이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14권 제2호**, 287-300.
- 최은식(2003). 구성주의 교육관에 기초한 중등음악교수모형 개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25집**, 1-23.
- 최은식 외(2014). **음악교육 연구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J. 듀윌 저/이인기 역(1975). **학교와 사회**. 서울: 박영사.
- 존 듀이 저/이홍우 번역·주석(1996).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J. 듀이 저/이재언 옮김(2005). **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 25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 石田一彦(2006). 教育實踐學の理念. 兵庫教育大學大學院聯合學校教育學研究科, 教育實踐學の構築-モデル論文の分析と理念型の提示を通して(10-21). 東京: 東京書籍.
- 小島律子(2010). 構成活動の観点よりみるわらべうたの學校教育における位置づけ-遊びから學習へ. 日本デューイ學會紀要, 第51号, 1-11.
- 小島律子, 關西音樂教育實踐學研究會(2010). 學校における「わらべうた」教育の再創造-理論と實踐-. 名古屋: 黎明書房.
- _____(2013). 樂器づくりによる想像力の教育-理論と實踐-. 名古屋: 黎明書房.
- _____(2014). 生活感情を表現するうたづくり-理論と實踐樂器づくりによる想像力の教育-理論と實踐-. 名古屋: 黎明書房.
- 西園芳信, 小島律子(2000). 総合的な學習と音樂表現. 名古屋: 黎明書房.
- 横山眞里(2016). 構成活動を原理とした音樂科授業における遊びから學習への連續性. 學校音樂教育實踐學會, 第20号, 3-14.

ABSTRACT

A Study of Constructive Activity with the Children Song, “Get a Star”

Kim Gyudo

This study explored children interact with children song in the reframing of a classroom based on constructive activity. The constructive reframe includes the children's thoughts and intentions, and in doing so, seeks ways for children to express themselves through their own musical sensitivities.

The constructive activity is a method of instruction that focuses around a discussion on musical experience and takes an interest in the interaction of children's internal (thought) and external (musical works).

As a result of this study, children can reaffirm their musical progress that is reconstructed through their ongoing experiences through constructive activity.

Key words: education practice, constructive activity, children song

투고일: 2016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7년 1월 12일(1월 22일), 게재확정일: 1월 29일